

## #사미인곡(정철)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훈싱 연분(緣分)이며 하눌 모를 일이런가.

이 몸이 태어날 때에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 갈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 사랑 견줄디 노여 업다.

나는 오직 젊어 잇고 님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다.

평싱(平生)에 원(願)하요디 훈디 네자 하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평생에 원하되 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엇그제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궁궐)에 올라 있었더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창평)에 내려 왔느냐.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삼삼(三三)년이라. 연지분(燕脂粉) 잇니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

내려올 때에 빛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 3년일세. 연지와 분이 있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 것인가?

막음의 미친 실음 텅텅(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인싱(人生)은 유한(有限)훈디 시름도 그지 업다. 무심(無心)훈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른고야.

인생은 유한한데, 근심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가는구나.

염낭(炎涼)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뀔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내니,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窓) 밝고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훈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뜰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黃昏)의 둘이 조차 벼마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껴 우는 듯, 반가워 하는 듯 하니, (이 달이 바로)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저 매화를 꺾어 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꼬?

꽃 디고 새님 나니 녹음(綠陰)이 실렸는디,

꽃잎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나위(羅韋)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뵈여 있다.

(님이 없어)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텅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부용꽃 무늬가 있는 방장을 걸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돌려 두니, 가뜰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그리도 지루하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 실을 풀어 내어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만들어 내니,

슈품(手品)은 ㄱ니와 제도(制度)도 ㄱ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그 옷을) 담아 었어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 만리(千里萬里) 길흘 뉘라셔 촌자 같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천만리나 되는 먼 길을 누가 찾아 갈꼬? 가거든 (이 함을)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하실까?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거든 말이,

하룻밤 사이 서리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 발을 걸으니,

동산(東山)의 둘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 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님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님이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님께서는 그것을)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穹谷) 점낫ㄱ티 밍그쇼셔.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건곤(乾坤)이 폐식하야 백설(白雪)이 훈 빗친 제, 사름은 ㄱ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천지가 겨울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날아다니지 않는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닐너 모습하리.

(따뜻한 곳이라 하는) 소상강 남쪽 둔덕(전남 창평)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 임 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님 거신 디 쏘이고저.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저.

따뜻한 봄기운을 (부채로) 부쳐내어 님계신 곳에 띄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님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칩슈(翠袖)를 半반만 거더, 일모슈둑(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올려, 해는 저물었는데 미미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것저것 생각함이 많기도 많구나.

다룬 히 수이 디여 긴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鈿恐候) 노하 두고,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사초롱을 걸어 둔 옆에 공후를 놓아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턱 맞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아, 이렇게 홀로 외로이 지내는) 이 밤은 언제나 썰꼬?

흐르도 열두 새 훈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닐자 하니,

하루도 열두 때, 한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님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잊으려 해도

마음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세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마음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랴.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고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으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흐노라.

님께셔야 (그 범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 # 누항사(박인로)

어리고 迂闊(우활)홀산 이니 우히 더니업다

어리석고 물정에 어두운 것은 나 보다 더한 이가 없다.

吉凶 禍福(길흉화복)을 하날긔 부쳐두고

길흉화복을 하늘께 맡겨 두고

陋巷(누항) 깃뽀 곳의 草幕(초막)을 지어두고

누추한 곳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 놓고

風朝 雨夕(풍조우석)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이 땀감이 되어

서흠밥 닛흠粥(죽)에 烟氣(연기)도 하도할샤

서흠 밥 닛흠 죽이지만 연기는 많기도 하구나.

언매만히 바든 밥의 懸(현) 雉子(치자)들은

조금 뿐인 밥에 초라한 모습을 한 자식들은

장긔 버려 놀미덜 나아오니

장기판에서 졸을 밀듯이 나아오니

人情(인정) 天理(천리)에 춤아 혼자 먹을 년가

사람의 도리로서 차마 혼자 먹을 수 있으랴?

설데인 熟冷(숙냉)애 빈 비 식일 뿐이로다.

덜 데운 숯농애 빈 배 속 뿐이구나.

生涯(생애) 이러하다 丈夫(장부) 뜻을 옮길런가.

살림살이가 이렇다고 사내 뜻을 바꿀 수 있으랴?

安貧一念(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한결같은 마음을 적을 망정 품고 있어

隨宜(수익)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齟齬(저어)하다.

옳은 일을 좇으며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그 올히 不足(부족)거든 봄이라 有餘(유여)하며, 주머니 뽀엿거든 瓶(병)의라 담겨시랴.

가을이 부족한데 봄엔들 여유가 있을 것이며 주머니 뽀었는데 술병엔들 (술이) 담겼겠느냐?

貧困(빈곤)한 人生(인생)이 天地間(천지간)의 나쁜이라.

빈곤한 사람이 온 천하에 나쁜이라.

飢寒(기한)이 切身(절신)하다 一丹心(일단심)을 이질논가.

배고프고 추워 목숨이 끊어질 듯 한들 한결같은 마음을 잊을 것인가?

奮義忘身(분의망신)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의로움에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

于橐(우탁) 于囊(우낭)의 줌음이 모아 녀코,

전대와 주머니에 한 줌 모아 넣고

兵戈(병과) 五載(오재)에 敢死心(감사심)을 가져 이셔,

전란 5년 동안에 용감히 죽겠다는 마음이 있어

履尸涉血(이시섭혈)하야 몇 百戰(백전)을 지니연고.

피 비린네 나는 전투를 몇 백번이나 지냈던가?

一身(일신)이 餘暇(여가)잇샤 一家(일가)를 도라보랴.

이 몸이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一奴長鬚(일노장수)는 奴主分(노주분)을 이젓거든,

늙은 한 종은 주인 사이의 도리를 잊었는데

告余春及(고여춘급)을 어니 사이 생각하리.  
 나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 줌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耕當問奴(경당문노)인들 놀더려 물물논고.  
 밭 가는 일은 종에게 물음이 마땅함이나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躬耕稼穡(궁경가색)이 니 分(분)인 줄 알리로드.  
 몸소 밭갈고 씨뿌려 농사지음이 내 분수인줄 알겠도다.  
 莘野耕叟(신야경수)와 壟上耕翁(농상경옹)을 賤(천)타 하리 업것마는  
 밭 갈던 늙은이(은나라 이윤과 진나라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은 없건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니쇼로 갈로손고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旱既太甚(한기태심)하야 時節(시절)이 다 느즌 제  
 가뭄이 이미 크게 들어 시절이 다 늦은 때에  
 西疇(서주) 늙은 눈에 잠깐 근 널비에  
 서쪽 두둑이 높은 눈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道上(도상) 無源水(무원수)를 반만잔 디혀 두고,  
 길 위에 흘러내리는 물을 반 만큼 대어 두고  
 쇼 흔적 두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삼,  
 소 한 번 주겠다며 엉성히 하는 말씀을  
 親切(친절)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黃昏(황혼)의 허위 허위 다라가서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도 없는 황혼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구디 다든 門(문) 바깥 어둑히 혼자 서서  
 굳게 닫은 문 밖에 멀찌기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를 良久(양구)토록 하온 後(후)에  
 큰 기침 에헴!을 꽤 오래도록 한 뒤에  
 어와 그 뉘신고 廉恥(염치) 업산 니옴노라.  
 아! 그쪽은 누구신가? 염치없는 나옴시다.  
 初更(초경)도 거윈디 그 엇지 와 겨신고.  
 초경(밤7시-9시)도 거의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가?  
 年年(연년)에 이러하기 苟且(구차)하 줄 알건만는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는  
 쇼 업슨 窮家(궁가)에 헤염만 하 왓삽노라.  
 소 없는 가난한 집에 쓸 데가 많아 와삽노라.  
 공하니나 갑시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공것으로나 값을 치루거나 줄만도 하지만은  
 다만 어제밤의 거넨집 저사람이 목 불근 수기雉(치)를 玉脂泣(옥지읍)게 꾸어니고  
 다만 어제 밤에 건넨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장끼를 기름에 구워내고  
 간 이근 三亥酒(삼해주)를 醉(취)토록 勸(권)하거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하 恩惠(은혜)를 어이 아니 갑흘넉고  
 이러한 은혜를 어니 아니 갓겠는가?

來日(내일)로 주마하고 큰 言約(언약)하야거든,  
 내일에는 주마하고 큰 언약 하였는데  
 失約(실약)이 未便(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약속을 어겨 편하지 아니 하니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라.  
 實爲(실위)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참으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고?  
 현먼덕 수기스고 측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흰 갓을 쓰고 축이 없는 짚신에 맥없이 물러 나오니  
 風彩(풍채) 저근 形容(형용)에 기즈칠 뿐이로다.  
 덩치조차 작은 모습에 개만 짖을 뿐이구나.  
 蝸室(와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北窓(북창)을 비겨 안자 식비를 기다리니,  
 북창을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無情(무정)하 戴勝(대승)은 이니 恨(한)을 도우는다.  
 무정한 오디새는 이내 한을 돕는구나.  
 終朝惆悵(종조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아침 나절 내내 슬퍼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農歌(농가)도 興(흥) 업서 들리는다.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린다.  
 世情(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세상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고기 이시면 권당벗도 하렷마는 두주먹 뵈게주고  
 술 고기 있으면 일가 친척과 벗도 많으련만 두 주먹 뵈게 주고  
 世態(세태) 업슨 말삼에 양조하나 못고오니  
 세태 인정이 없는 말삼에 내 모양마저 곱지 못하니  
 하하아적 불일쇼도 못비려 마랏거든  
 하루 아침 부릴 소도 못 빌리고 말았는데  
 하물며 東郭燔間(동곽번간)의 醉(취)홀뜻을 가딜소나  
 하물며 성 동쪽의 무덤 사이에 취할 뜻을 가질소나?  
 아작온 저 소뵈는 뱃보님도 도홀세고.  
 아까운 저 쟁기는 뱃 보임도 좋을시고  
 가시영긴 목은밭도 容易(용이)케 갈련마는  
 가시 영긴 목은 밭을 쉽게 갈련마는  
 虛堂半壁(허당반벽)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텅 빈 집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출하리 첫봄의 프라나 불일거슬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풀녀흔들 알니잇사 사러오라  
 이제야 팔려한들 알 사람 있어 사러 오랴?  
 春耕(춘경)도 거의 거다 후러쳐 더더두자  
 봄 갈이도 거의 끝나니 내팽개쳐 던져 두자.  
 江湖(강호) 한숨을 꾸언지도 오리려니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꿈을 꾸 지도 오래더니  
 口腹(구복)이 爲累(위루)하야 어지버 이저쩌다  
 먹고 마시는 것이 꺼리낌이 되어 아아! 잊었도다.

瞻彼淇澳(점피기옥)흔디 綠竹(녹죽)도 하도 할샤.  
 기수의 물가를 쳐다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有斐君子(유비 군자)들아 낙디하나 빌려스라.  
 교양있는 선비들아! 낚시 하나 빌려 주오.  
 蘆花(노화) 곱픈 곳에 明月淸風(명월청풍) 벗이 되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넘지 업슨 風月江山(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임자 없는 자연에 절로절로 늦으리라.  
 無心(무심)흔 白鷗(백구)야 오라하며 말라하라  
 무심한 갈매기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라.  
 다토리 업슬슨 다문인가 너기로라  
 다툼 사람이 없는 것이 다만 이것 뿐인가 여기노라.  
 이제야 쇼 비리 盟誓(맹세)코 다시마자  
 이제는 쇼 빌리는 일을 맹세코 다시는 하지 않으리.  
 無常(무상)흔 이 몸애 무슨 志趣(지취) 이스리마는  
 못난 이 몸에 무슨 의지와 취향이 있으리오마는  
 두세이령 bat논을 다무겨 더더두고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이시면 粥(죽)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집 남의거슨 전혀부러 말렛노라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니 貧賤(빈천) 슬히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내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富貴(부귀)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 오라?  
 人間(인간) 어니 일이 命(명) bat기 삼겨시리.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으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오며다 百年(백년) 살나  
 가난하다고 금방 죽으며 부유하다고 백년 살겠느냐?  
 原憲(원헌)이논 몇날살고 石崇(석송)이논 몇히산고  
 원헌(공자 제자)이논 며칠을 살았고 석송(진나라 때의  
 큰 부자)이논 몇 해나 살았던가?  
 貧而無怨(빈이 무원)을 어렵다 흥건마는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려울 지라도  
 니 生涯(생애) 이러호디 설온 뜻은 업노왜라.  
 내 생활이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다.  
 簞食瓢飲(단사표음)을 이도 足(족)히 너기로라.  
 아주 가난하게 사는 생활을 만족하게 여기노라.  
 平生(평생) 흔 뜻이 溫飽(온포)애논 업노왜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음이 아니로다.  
 太平天下(태평천하)애 忠孝(충효)를 일을 삼아  
 태평천하에 충효로서 일을 삼아  
 和兄弟(화형제) 信朋友(신봉우) 외다하리 뉘 이시리.  
 형제 간에 화목하고 벗들과 믿음으로서 사귀를 그르다  
 고 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  
 그 bat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렛노라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생긴대로 살겠노라.

## #선상탄(박인로)

늘고 病(병)든 몸을 舟師(주사)로 보니실시,  
 (늙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시므로)  
 乙巳(을사) 三夏(삼하)애 진동영(鎭東營) 느려오니,  
 (선조 38년 을사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關防重地(관방 중지)에 炳(병)이 갑다 안자실랴.  
 (국경의 요새지에서 병이 갑다고 앉아만 있겠는가?)  
 一長劒(일장검) 비기 차고 兵船(병선)에 구테 올라,  
 (한자루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여 올라서)  
 勵氣瞋目(여기진목)하야 對馬島(대마도)을 구어보니  
 (기운을 떨치며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帑帑 黃雲(황운)은 遠近(원근)에 사혀 있고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우 곳에 쌓여 있고)  
 아득흔 滄波(창파)는 긴 하늘과 흔 빗칠쇠.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이로구나).  
 船上(선상)에 徘徊(배회)하며 古今(고금)을 思憶(사억)하고,  
 배 위를 이리저리 거닐며 옛날과 오늘을 생각하며  
 어리미친 懷抱(회포)애 軒轅氏(헌원씨)를 애드노라.  
 어리석은 생각에 헌원씨(배를 처음 만든 황제)를 유감  
 스럽게 생각하노라  
 大洋(대양)이 茫茫(망망)하야 天地(천지)에 둘러시니,  
 큰 바다가 넓고 아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진실로 비 아니면 風波萬里(풍파만리) bat기, 어니 四夷  
 (사이) 엿볼넉고.  
 진실로 배가 없었더라면 풍파가 많은 만 리 밖의 사방  
 에서 어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겠는가?  
 무슴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릇하코.  
 무슨 일 하려 해서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던가?  
 萬世千秋(만세천추)애 7업슨 큰 弊(폐) 되야,  
 길고 긴 세월에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普天之下(보천지하)애 萬民怨(만민원) 길우는다.  
 온 천하의 만 백성의 원한을 키우고 있구나  
 어즈버 씨드라니 秦始皇(진시황)의 타실로다.  
 아, 깨달으니 (왜적의 침입은) 진시황의 탓이로다  
 비 비록 잇다 하나 倭(왜)를 아니 삼기던들,  
 배가 있었다고 해도 왜적을 만들어 내지 않았더라면  
 日本(일본) 對馬島(대마도)로 뵈 비 절로 나올넉가.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왔겠는가?  
 뉘 말을 미더 듯고, 童男童女(동남 동녀)를 그디도록  
 드러다가,  
 진시황은 누구 말 듣고서, 동남동녀를 그렇게 들여다가  
 海中(해중) 모든 섬에 難當賊(난당적)을 기쳐 두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들  
 을 남겨두고  
 痛憤(통분)흔 羞辱(수욕)이 華夏(화하)애 다 밋나다.  
 그 분통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하였는



가?

長生不死藥(장생 불사약)을 얼마나 어더 니여,  
장생불사한다는 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萬里長城(만리장성) 높히 사고 몇 萬年(만년)을 사도편고.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 만 년이나 살았던가?  
놈들로 죽어가니 有益(유익)흔 줄 모르로다.  
남들처럼 똑같이 죽어가니, 동남동녀를 보낸 일이 유익  
한 일인지 모르겠다.  
어즈버 싱각하니 徐市(서불) 等(등)이 已甚(이심)하다.  
돌이켜 생각하니 서불의 무리들이 지나친 일을 하였다.  
人臣(인신)이 되야서 亡命(망명)도 하는 것가.  
진시황의 신하가 된 몸으로 망명도주를 한 것인가?  
神仙(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신선을 만나 불로초를 얻는 일을 못 하였거든 얼른 돌아  
아왔더라면,  
舟師(주사) 이 시렴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일본 오랑개의 씨가 퍼지지 않아서) 수군인 나의 이  
근심은 결코 생겨나지 않았으리라.  
두어라, 既往不咎(기왕불구)라 일너 무엇으로소니.  
그만 두어라, 이미 지난 일을 탓할 것이 못 되니, 말해  
서 무엇하겠느냐?  
속절업슨 是非(시비)를 후리쳐 더더 두자.  
공연한 시비를 내던져 두자  
潛思覺悟(잠사각오)하니 내 뜻도 固執(고집)고야.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皇帝作舟車(황제 작주거)는 원 줄도 모르로다.  
현원씨가 배를 만든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張翰(장한) 江東(강동)에 秋風(추풍)을 만나신들  
진나라때 벼슬살이를 갔다가 가을 바람에 사향심이 일  
어나 강동으로 돌아간 장한이 가을 바람을 만났어도  
扁舟(편주) 곳 아니 타면, 天淸海闊(천청 해활)하다  
만일 작은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할지라도  
어니 興(흥)이 절로 나며, 三公(삼공)도 아니 밧골 第一  
江山(제일 강산)에,  
어떤 즐거움이 저절로 일어나며, 높은 벼슬자리와도 바  
꾸지 않을 경치 좋은 강산에  
浮萍(부평) 곱흔 漁父生涯(어부 생애)을 一葉舟(일엽주)  
아니면, 어디 부쳐 든힐논고.  
부평초처럼 물에 떠다니는 어부의 생활은 한조각 작은  
배가 아니었다면 어디에 의지하여 다닐 것인가?  
일언 닐 보건던, 비 삼긴 制度(제도)야 至妙(지묘)흔 덧  
하다마는,  
이런 일을 보면, 배를 만든 제도야 지극히 묘하지만,  
엇디흔 우리 물은 노는 듯흔 板屋船(판옥선)을 晝夜(주  
야)의 빗기 타고,  
어찌하여 우리들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

듬히 타고

臨風詠月(임풍 영월)호디 興(흥)이 전혀 업는게오.  
풍월을 읊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昔日(석일) 舟中(주중)에는 杯盤(배반)이 狼藉(낭자)터니,  
옛날 소동파가 적벽강 위에 띄운 배에는 술상이 어지  
럽게 흩어졌더니  
今日(금일) 舟中(주중)에는 大劒長槍(대검장창)뿐이로다.  
오늘 우리가 탄 배 가운데에는 큰 칼과 긴 창뿐이로다.  
흔 가지 비 언마는 가진비 다라니, 期間(기간) 憂樂(우  
락)이 서로 곱지 못하다.  
같은 배이건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그 흘러간 시대만큼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다.  
時時(시시)로 멀이 드러 北辰(북신)을 바라보며,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다이나.  
시대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편에 떨어뜨  
린다.  
吾東方(오 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마는,  
우리나라의 문물이 (찬란한 문물을 자랑하던) 한나라와  
당나라와 송나라에 뒤지겠냐마는  
國運(국운)이 不幸(불행)하야 海醜(해추) 兇謀(흉모)에  
萬古羞(만고수)을 안고 이셔,  
나라의 우수가 불행하여 왜적의 흉악한 꾀에 빠져 만  
고에 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百分(백분)에 흔 가지도 못 시켜 버려거든,  
백분의 일이라도 못 씻어 버렸기에  
이 몸이 無狀(무상)흔들 臣子(신자)이 되야 이셔다가,  
이 몸이 변변하지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窮達(궁달)이 길이 달라 몬 뵈옵고 늘거신들,  
신하와 임금의 신분이 서로 달라 못 모시고 늙어간들  
憂國(우국) 丹心(단심)이야 어니 刻(각)에 이즐넉고.  
나라를 걱정하며 임금을 향한 충성스런 마음이야 어느  
때라고 잊겠는가?  
慷慨(강개) 계운 壯氣(장기)는 老當益壯(노당익장)하다  
마는,  
나라와 세상 일을 근심하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  
기지 못한 장한 기운은 늙으면서 더욱 씩씩하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病中(병중)에 드러시니, 雪憤伸冤(설  
분신원) 어려울 듯 하건마는,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함을 씻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리기가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死諸葛(사제갈)도 生中達(생중달)을 멀리 좇고,  
발 업슨 孫賓(손빈)도 龐涓(방연)을 잡아거든,  
그러나 죽은 제갈공명도 산 중달을 멀리 쫓았고 발이  
없는 손빈도 발이 성한 방연을 잡았는데  
흐물며 이 몸은 手足(수족)이 7자 잇고 命脈(명맥)이  
이어시니,

하물며 이 몸은 손과 발이 성하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  
鼠竊狗偷(서절 구투)을 저그나 저흠소냐.  
쥐나 개와 같은 왜적을 조금이나 두려워하겠는가?  
飛船(비선)에 달려드러 先鋒(선봉)을 거치면, 九十月(구시월) 霜風(상풍) 落葉(낙엽)가치 헤치리라.  
나는 듯이 빠른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휘몰아치면 구시월 상풍에 낙엽 지듯 해치우리라.  
七縱七禽(칠종칠금)우리들 못할 것가.  
제갈공명이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가 놓아준 일을 우리라고 못할 리가 있겠는가?  
蠡彼島夷(준피도이)들아 수이 乞降(걸항) 하야스라.  
벌레처럼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개야, 얼른 항복하여 용서를 빌려무나  
降者(항자) 不殺(불살)이니 너를 구티 殲滅(섬멸)하라.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나니, 너희들을 구태여 모조리 다 죽이겠느냐?  
秦王(오왕) 聖德(성덕)이 欲竝生(욕병생) 하시니라.  
우리 임금의 거룩한 덕이 너희와 같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니라.  
太平天下(태평천하)에 堯舜(요순) 君民(군민) 되야 이서,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 시대와 같은 화평한 군민이 되어서  
日月光華(일월광화)는 朝復朝(조부조) 하얏거든,  
광명한 해와 달의 빛이 아침이요 또다시 아침인 태평성대가 계속되면  
戰船(전선)트던 우리몸도 魚舟(어주)에 唱晚(창만)하고,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기잡이 배로 바뀌 타서 저녁 무렵을 노래하고  
秋月春風(추월춘풍)에 눕히 베고 누어 이서,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성군치하의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 # 고공가(허전)

집의 옷 밥을 얻고 들 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괴별을 아느냐 모로느냐.  
제 집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소식(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업술 지 쫓꼬면서 니르리라.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소리하려 홀 지,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처음에 조부모님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에, 어진 마음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풀 췌고 터을 닦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서리 보습 장기  
쇼로 田畝(전답)을 起耕(起耕)하니,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기경(땅을 갈아 논밭을 만듦)하니,  
오려논 터밧치 여드레 7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올벼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이 되었고  
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쪼커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  
저희마다 여름 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저희들이 각각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슬,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밥 사발 크나 차그나 동웃시 쪼코 즈나, ㅁ음을 ㅁ호논 ㅁ호슈을 ㅁ시오는 ㅁ,  
밥사발이 크거나 작거나 입은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ㅁ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ㅁ,  
무썸 일 감드려 흘깃할것 ㅁ느 ㅁ다. 너희니 일 아니코 時節(시절)쫓츠 ㅁ오나와,  
무슨 일에 흘깃흘깃 반목을 일삼느냐?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이 사나워(흥년조차 들어서),  
곳독의 니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논디, 엇그지 火強盜(화강도)에 家產(가산)이 蕩盡(탕진)하니,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왜적)를 만나 가산이 탕진하니,  
집 ㅁ나 불타 ㅁ고 먹을 췌시 전혀 업다. 크나큰 세스(歲事)을 엇지 ㅁ여 니로려료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업다. 크나큰 세간(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서 일으키려는가?  
金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아 ㅁ ㅁ음 ㅁ먹어슬라.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너희니 절머논디 험 혈나 아니순다. ㅁ 소티 밥 ㅁ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하라.  
너희는 젊다 하여 생각하려고 아니하느냐? 한 술에 밥 먹으면서 항상 다투기만 하면 되겠느냐.  
ㅁ ㅁ음 ㅁ ㅁ으로 녀름을 지어스라. ㅁ 집이 가을열면 옷 밥을 分別(분별)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옷과 밥을 分別하라(인색하게 하라).  
누고는 장기 잡고 누고는 쇼을 ㅁ오니, ㅁ 같고 ㅁ 살마며 세워 더져 두고,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ㅁ오니, ㅁ 같고 ㅁ 같아서 벼를 세워(심어) 더져 두고,  
ㅁ ㅁ호 ㅁ호미로 기음을 ㅁ미야스라. 山田(산전)도 ㅁ츠르 ㅁ고 ㅁ논도 기워 간다.  
날 좋은(날카로운) 호미로 김매기를 하자꾸나. 산에 있

는 발도 잡초가 우거지고 무논에도 풀이 무성하여간다.  
사립피 물목 나서 뱃 겨터 세울세라. 七夕(칠석)의 호  
미 씻고 기음을 다 민 후의,

도롱이와 샷갓을 말뚝에 씌워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벼  
결에 세워라. 칠월 칠석에 호미 씻고 기음을 다 맨 후  
에,

숯 쪼기 뉘 잘 하며 섬으란 뉘 엇그랴. 너희 지조 세아  
려 자라자라 맛스라.

새끼는 누가 잘 꼬며, 섬(곡식을 담기 위해 짚으로 엮  
은 것)은 누가 엮겠는가? 너희들의 재주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

7을 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하랴. 집으란 내 지  
으게 움으란 내 무더라.

추수를 한 후에는 성조(집 짓는 일)를 아니하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움은 내가 만들어라.

너희 지조를 내 斟酌(짐작)하엿노라.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을 하려므나.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엿노라.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깊이 생각하려므나.

명석의 벼를 언들 도흔 히 구름 씨여, 뱃뉘를 언지 보  
랴.

명석에 벼를 넣어 말린들 해 아래 구름이 끼어서 햇별  
을 언제 보겠느냐?

방하을 못 씨거든 거츠나 거츰 오려, 옥 굶튼 白米(백  
미) 될 줄 뉘 아라 오리스니.

방아를 못 찼는데 거칠고도 거친 올벼가, 옥 같은 백미  
(흰 쌀)가 될 줄을 누가 알아 보겠는가?

너희니 드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저지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니,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 살고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왜적)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니 귀는 업서 저런 줄 모르관디, 화살을 전혀 안고  
옷 밥만 닳토는다.

너희들은 귀와 눈이 없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  
지, 화살은 전혀 없고 옷과 밥만 가지고 다투느냐?

너희니 다리고 톱눈가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춤  
저녁 더하다 먹엇거든,

너희들을 데리고 행여 추운가 굶주리는가 염려하며, 죽  
조반, 아침, 저녁을 다 해다가 먹었는데,

은혜란 싱각 아녀 제 일만 하려 하니, 험 해는 새 들이  
리 어니 제 어더 이셔,

은혜는 생각지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 일을 맞치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이드라 하며  
셔 숯 훈 소리 다 쪼괘라.

집안 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희 일

을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도다.

## #연행가(홍순학)

하 오월 초칠일의 도강 날조 정하여네.

하오월(夏五月) 초이레의 도강(渡江) 날짜 정하엿네.

방물을 정검하고 형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갈 물건을 점검하고 여행 장비를 수습하여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압록강변에 다다르니 송객정(送客亭)이 여기로다.

의주 부윤 나와 안고 다담상을 차려 늦코,

의주 부윤이 나와 앉고 다담상(茶啖床)을 차려 놓고,

삼 사신을 전별홀시 처창기도 그지없다.

사신을 전별(錢別)하는데 구슬프기도 그지없다.

일비 일비 부일비논 서로 안져 권고하고,

한 잔 한 잔 또 한 잔으로 서로 앉아 권고하고,

상소별곡 훈 곡조를 참아 듣기 어려워라.

상사별곡(相思別曲) 한 곡조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장계를 봉한 후의 썰더리고 이러나셔,

장계(신하가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를 봉한  
후에 떨뜨리고 일어나셔,

거국지회 그음업서 억제하기 어려운 중

나라 떠나는 감회 그지없어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꽃눈물이 심회를 돕는다.

여인의 꽃다운 눈물이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구나

### <중략>

일엽 소선 비을 저어 점점 멀리 떠서 가니,

한 조각 자그마한 배를 저어 점점 멀리 떠서 가니,

푸른 봉은 첩첩하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

푸른 봉은 첩첩하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

빅운은 요요하고 광식이 참담하다.

흰구름은 멀리 아득하고 햇살의 빛깔이 참담하다.

비치 못할 이니 마음 오날이 무슨 날고.

비하지 못할 이내 마음 오늘이 무슨 날이고.

출세한 지 이십오 년 시호의 조라나셔

세상에 난 지 이십오 년 부모님을 모시고 자라나셔

평일의 이축하여 오리 떠나 본 일 업다.

평소에 부모님 곁을 떨어져 오래 떠나 본 일이 없다.

반 년이나 엇지홀고, 이위정이 어려우며,

반 년이나 어찌할꼬. 부모 곁을 떠나는 정이 어려우며,

경기도 지경 빅 니 밧기 먼길 단여 본 일 업다.

경기도 지방 백 리 밖에 먼 길 다녀 본 적 없다.

허박하고 약한 기질 말 이 형역 걱정일세.

허약하고 약한 기질에 만 리 여행길이 걱정일세.

훈 줄기 압록강의 양국지경 난화스니,

한 줄기 압록강이 양국의 경계를 나누었으니,

도라보고 도라보니 우리 나라 다시 보자.

돌아보고 돌아보니 우리 나라 다시 보자.

구연성(九連城) 다다라셔 훈 고기를 너머셔니

구연성에 다다라서 한 고개를 넘어서니  
 앓가 보든 통군정이 그림자도 아니 되고,  
 아까 보던 통군정(統軍亭)이 그림자도 아니 보이고,  
 쥘금 뵈든 백마산(白馬山)니 봉오리도 아니 뵈다.  
 조금 보이던 백마산이 이 그림자도 아니 보인다.  
 뵈여 리 무인지경 인적이 고요하다.  
 뵈여 리의 사람 없는 곳에 인적이 고요하다.  
 위험한 만첩 산중 울밀한 숲목이며  
 위험한 만첩의 산중 뵈 이 우거진 나무들이며  
 적막한 시 소리는 처처의 구슬푸고,  
 적막한 새 소리는 곳곳에 구슬푸고,  
 훈가흔 들의 쏜춘 누을 위히 피었느냐?  
 한가한 들의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느냐?  
 앓갑도다, 이러한 쏜 양국의 발인 싸의  
 아갑도다, 이러한 쏜 두 나라의 버린 땅에  
 인가도 아니 살고 전답도 업다 하되,  
 인가(人家)도 아니 살고 논밭도 없다고 하되,  
 곳곳지 깊은 골의 계천 소리 들이는 듯.  
 곳곳지 깊은 골에 닭소리 개소리 들리는 듯.  
 왕왕이 험한 산세 호포지한 겁이 난다.  
 넓고 험한 산의 형세 범과 표범의 해가 겁이 난다.  
 쥘방으로 상을 차로 점심을 가져오니  
 밥 짓는 데서 상을 차려 점심을 가져오니,  
 민쌍의 내려안져 중화를 하여 보주.  
 맨 땅에 내려 앉아 점심을 먹어 보자  
 앓가가지 귀튼 몸미 어이 졸지 천하여서  
 아까까지 귀하던 몸이 어이하어 졸지에 천해져서,  
 일등 명창 진지거리 슈청 기심 어디 가고  
 일등 명창이 오락가락하던 슈청 기생은 어디가고,  
 만반 진수 쇼흔 반찬 것반도 업스나마  
 가득한 맛난 음식과 좋은 반찬 딸린 반찬도 없으나마,  
 건양청(乾糧廳) 밥 훈 그릇 일엇툃 감식하니,  
 건양청에서 준 밥 한 그릇 이렇듯이 달게 먹으니,  
 가이업시 되어스나 엇지 아니 우수오랴.  
 가엿게 되었으나 어찌 아니 우수오랴.  
 하쳐라고 초조가니 집 제도가 우습도다.  
 목을 곳이라고 찾아가니 집 제도가 우습도다.  
 오랑각 이간반의 벽돌을 곱게 깔고,  
 보 다섯 줄로 된 집 두 칸 반에 벽돌을 곱게 깔고,  
 반 칸식 칸을 지어 좌우로 디강하니,  
 반 칸식 칸이라는 걸 지어 좌우로 마주보게 하니,  
 칸 모양 엇더터냐, 칸 제도를 못 보거든  
 칸의 모양이 어떻터냐, 칸의 제도를 못 보았거든  
 우리 나라 붓두막이 그와 거의 흡사하여,  
 우리 나라 부뚜막이 그와 거의 흡사하여  
 그 밋히 구들 노하 불을 씨게 마련하고,  
 그 밑에 구들 놓아 불을 땔 수 있게 마련하고  
 그 우히 조리 펴고 밤이면 누어 쪼며,  
 그 위에 자리 펴고 밤이면 누워 자며,  
 낮이면 손임 접디 걸터앉기 가장 쇼코,  
 낮이면 손님 접대 걸터앉기에 매우 좋고,

치유히온 완자창과 면회흔 벽돌담은  
 기름칠을 한 완자창과 회를 바른 벽돌담은  
 미천흔 호인들도 집치레 과람코나.  
 미천(微賤)한 오랑캐들도 집치레가 지나치구나.

<중략>

계집년들 볼 만하다 그 모양은 웃더튼냐.  
 계집년들 볼 만하다. 그 모양은 어떻더냐.  
 머리만 치거실러 가림조는 아니 타고,  
 머리만 치거슬러 가르마는 아니 타고  
 뒤통슈의 모화다가 뭇시 잇게 슈식하고,  
 뒤통수에 모아다가 뭇시 잇게 수식하고,  
 오식으로 만든 쏜춘 스면으로 쏜조스며,  
 오색으로 만든 꽃은 사면으로 쏜았으며,  
 도화분 단장하여 반취한 모양갓지  
 복숭아꽃색 분으로 단장하여 반쯤 취한 모양같이  
 불그러 고흔 티도 아미를 다스르고,  
 불그스레 고운 태도 눈썹 치장을 하였고,  
 살죽을 고이 씨고 붓스로 그려스니,  
 귀밑 머리 고이 끼고 붓으로 그렸으니,  
 입술 아리 연지빛흔 단술이 분명하고,  
 입술 아래 연지빛은 붉은 입술 분명하고,  
 귓방을 푸른 군영 귀여소리 달아스며,  
 귓방을 뚫은 구멍 귀고리를 달았으며,  
 의복을 불작시면 사나히 제도되되,  
 의복을 불작시면 사나이 제도되되,  
 다홍빛 바지의다 푸른빛 저구리오,  
 다홍빛 바지에다 푸른빛 저고리요,  
 연도식 두루마기 발등까지 길게 지어,  
 연두색 두루마기 발등까지 길게 지어  
 목도리며 수구 쏜동 화문으로 수을 노코,  
 목도리며 소매 끝동 꽃무늬로 수를 놓고,  
 품 너르고 소매 넓어 풍신 쇼게 떨쳐 입고,  
 품 너르고 소매 넓어 풍신 좋게 떨쳐 입고,

옥수의 금지환은 외썩만 넓적하고,  
 옥 같은 손의 금반지는 외썩만 넓적하고,  
 손목의 옥고리는 굴게 스려 둥글고나.  
 목에 낀 옥고리는 굴게 사려 둥글구나.

<중략>

호인의 풍속들이 즈침치기 숭상하여,  
 오랑캐의 풍속들이 가축치기 숭상하여,  
 준총 곱튼 말들이며 범 갓튼 큰 노시를  
 잘 달는 좋은 말들이며 범 같은 큰 노새를  
 굴네도 아니 빠고 지갈도 아니 먹여  
 굴레도 씌우지 않고 재갈도 물리지 않아  
 뵈여 필식 압세우고 훈 사람이 모라 가디  
 뵈여 필씩 앞세우고 한 사람이 몰아 가되,  
 구를의 드러서서 달리는 것 못 보게고,  
 구유에 들어서서 달래는 것 못 보겠고,  
 양이며 도야지를 슈빅 마리 켜를 지어  
 양이며 돼지를 수백 마리 떼를 지어



조그마흔 아희놈이 혼돌이 모라 가디,  
 조그마한 아이놈이 한돌이 몰아 가되,  
 디가리를 혼디 모화 허여지지 아니하고,  
 대가리를 한데 모아 헤어지지 아니하고,  
 집치 곱튼 황소라도 코 안 쫓코 잘 부리며,  
 집채같은 황소라도 코 안 뚫고 잘 부리며,  
 조그마흔 당나귀도 밋돌질을 능히 하고,  
 조그마한 당나귀도 맷돌질을 능히 하고,  
 디둑 당둑 오리 거육 개 괴쌔지 길으며,  
 댕닭, 장닭, 오리, 거위, 개, 고양이까지 기르며,  
 발발이라 하는 기는 계집년들 품고 자니.  
 발발이라 하는 개는 계집년들 품고 자네.  
 심지어 초롱 속의 온갖 시을 너허니시,  
 심지어 초롱 속에 온갖 새를 넣었으니,  
 잉무시며 빅설조는 사람의 말 능히 한다.  
 앵무새며 백설조(白舌鳥)는 사람의 말 능히 한다.  
 어린아희 길은 법은 풍속이 괴상하다.  
 어린아이 기르는 법은 풍속이 괴상하다.  
 횡담의 줄을 미여 그니 밑듯 축혀 달고,  
 행담(싸리 등으로 엮은 상자)에 줄을 매어 그네 매듯  
 추켜 달고,  
 우는 아희 젓 먹여서 강보의 뭉뚱그려  
 우는 아이 젓을 먹여서 포대기에 뭉뚱그려  
 횡담 속의 누여 주고 줄을 잡아 흔들며은  
 행담 속의 뉘어 주고 줄을 잡아 흔들며는  
 아모 소리 아니하고 보치는 일 업다 하데.  
 아무 소리 아니하고 보채는 일 없다 하대.  
 농스하기 길삼하기 브즈런이 위엽한다.  
 농사하기, 길쌈하기, 부지런히 일을 한다.  
 집집이 디문 압히 뵈흔 거름 퇴산 까고,  
 집집이 대문 앞에 쌓은 거름 태산 같고,  
 논은 엽고 밭만 잇셔 온갖 곡식 다 심운다.  
 논은 없고 밭만 있어 온갖 곡식 다 심는다.  
 나귀말기 장기 메여 소 업셔도 능히 갈며,  
 나귀말에 쟁기를 메여 소 없어도 능히 갈며,  
 흙의조로 길게 하여 기음 미기 서서 한다.  
 호미 자루 길게하여 김매기 서서한다.